

투자자를 위한 자산운용 보고서

운영기간 2016 10 30 - 2017 01 29

1 ()

Professionalism

Distinctiveness

Management

Competitiveness

Transparency

가 [2017.01.29]

가

가

가

[

]

)]

[

]

[

(

)

1

(

]



1.

2.

3.

4.

5.

6.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	--------------------	------	-----------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A8195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C		AE124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lass C-f		AJ468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S		AP046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펀드(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2.01.30
운용기간	2016.10.30 - 2017.01.29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플러스자산운용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 펀드온라인코리아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본 펀드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 및 주식연계채권(신용등급 A- 이상, CB, BW, EB 등 포함)에 투자하고 채권레버리지 전략 및 단기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10% 이하를 주식(공모주, 배당주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등 포함)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본 투자신탁은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 운용사 홈페이지 [<http://www.plusasse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자산총액	3,820	2,448	-35.92
	부채총액	22	14	-37.14
	순자산총액	3,798	2,434	-35.91
	기준가격	1,006.16	1,010.87	0.47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C	기준가격	999.01	1,001.30	0.23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lass C-f	기준가격	1,003.96	1,007.70	0.37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S	기준가격	1,002.10	1,005.43	0.33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17.01.31	19	2,408	1,010.87	1,003.02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 일본의 부양책 효과 부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탈리아 금융기관 부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펀드는 실적 가시성 및 이익 지속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여 보유 중이며 수익률 향상을 위한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11월 중순경부터 크게 상승하였고 이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통안채와 특수채를 보유하면서 보유 수익 위주로 운용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금리인상 및 정치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나 유가의 저점을 확인하였고 각국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충격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재정투자 및 감세정책으로 인한 중소형주 강세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실적 가시성 및 이익 증가 위주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절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초 효과로 시장으로 자금이 재유입 되면서 시장금리가 연말보다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국내 금리가 국내 지표보다는 미국 금리에 연동되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미 재정정책 및 금리인상 횡수와 시기 등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본 펀드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유 수익 위주로 운용하겠습니다.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6.10.30 ~ 17.01.29	16.07.30 ~ 17.01.29	16.04.30 ~ 17.01.29	16.01.30 ~ 17.01.29	15.01.30 ~ 17.01.29	14.01.30 ~ 17.01.29	12.01.30 ~ 17.01.29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 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47	0.73	0.93	1.09	3.41	8.32	16.70
(비교지수대비 성과)	(-0.23)	(-0.30)	(-0.53)	(-1.15)	(-0.34)	(2.09)	(4.63)
비 교 지 수	0.70	1.03	1.46	2.24	3.75	6.23	12.07
종류(Class)별 현황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 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C	0.23	0.25	0.21	0.13	1.46	5.29	-
(비교지수대비 성과)	(-0.47)	(-0.78)	(-1.25)	(-2.11)	(-2.29)	(-0.94)	-
비 교 지 수	0.70	1.03	1.46	2.24	3.75	6.23	-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 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lass C-f	0.37	0.54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33)	(-0.49)	-	-	-	-	-
비 교 지 수	0.70	1.03	-	-	-	-	-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 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종류S	0.33	0.46	0.52	0.54	2.30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37)	(-0.57)	(-0.94)	(-1.70)	(-1.45)	-	-
비 교 지 수	0.70	1.03	1.46	2.24	3.75	-	-

※ 비교지수 : (0.1 * [KOSPI]) + (0.9 * [국고채 3년])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스마트헤지증권1(채권혼합) C-f 미운용기간 2014.03.26~2016.06.27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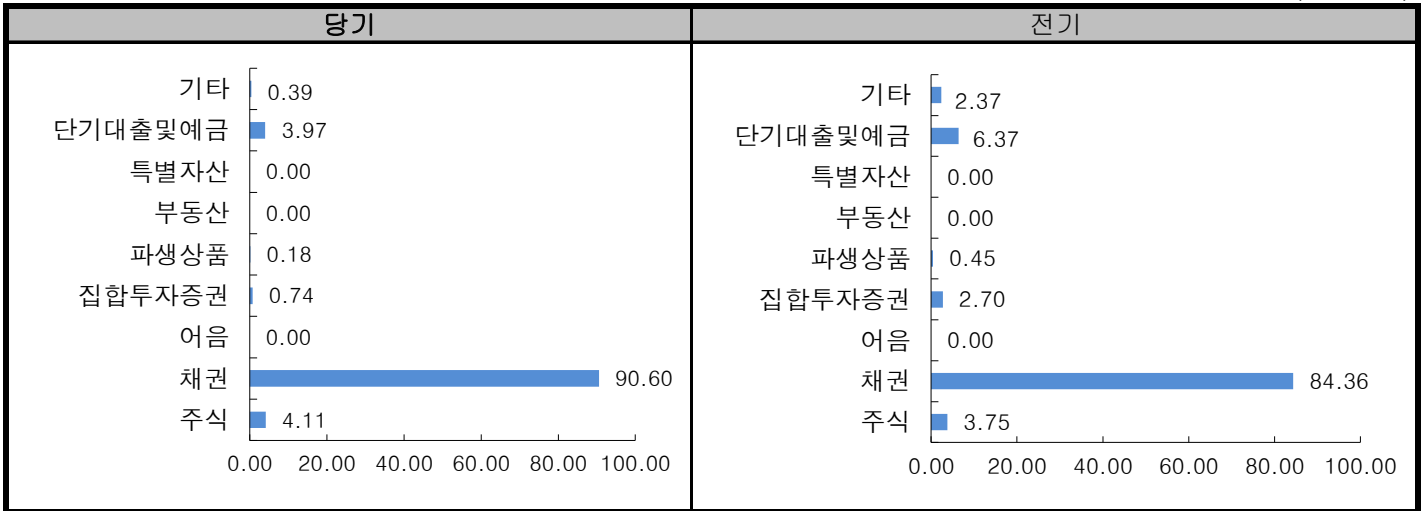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10	8	-	-1	-6	-	-	-	-	2	0	13
당기	-2	8	-	4	-1	-	-	-	-	0	0	11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1 (4.11)	2,218 (90.60)	-	18 (0.74)	4 (0.18)	-	-	-	-	97 (3.97)	10 (0.39)	2,448 (100.00)
합계	101 (4.11)	2,218 (90.60)	-	18 (0.74)	4 (0.18)	-	-	-	-	97 (3.97)	10 (0.39)	2,448 (100.00)

* () : 구성 비중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Long(매수)

(단위: 주, 백만원, %)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8	9	0.38	-
삼성전자	4	8	0.32	-
현대모비스	29	8	0.31	-
한국타이어	134	8	0.31	-
롯데제과	35	7	0.29	-

▶ 주식 - Short(매도)

※ 해당사항 없음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통안0156-1710-02	1,500	1,503	2015.10.02	2017.10.02	-	RF	61.39	61.39

통안0170-1708-02	700	704	2015.08.02	2017.08.02	-	RF	28.74	28.75
토지주택채권31	7	11	2010.05.14	2020.05.14	-	AAA	0.45	-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 목 명	종류	자산운용회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비중	비고
KODEX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12	12	0.49	-

▶ **단기대출 및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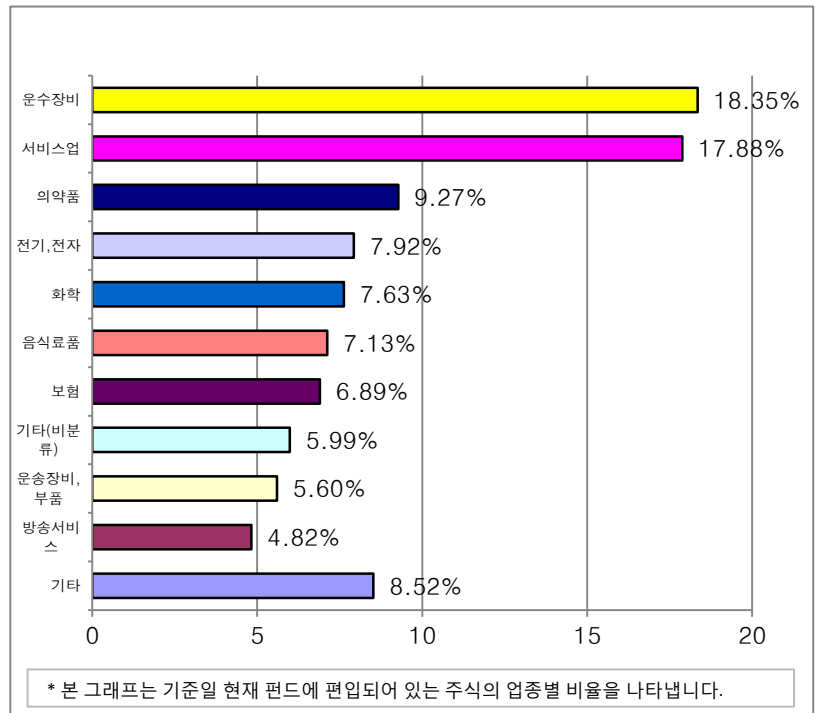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예금	하나은행		97	0.92		-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Long(매수)**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운수장비	18	18.35
2	서비스업	18	17.88
3	의약품	9	9.27
4	전기,전자	8	7.92
5	화학	8	7.63
6	음식료품	7	7.13
7	보험	7	6.89
8	기타(비분류)	6	5.99
9	운송장비,부품	6	5.60
10	방송서비스	5	4.82
11	기타	9	8.52
	합 계	101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코스콤 기준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Short(매도)**

※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 해당사항 없음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 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이관홍	2014.01.24	책임운용전문인력	5	19,662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7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 자산운용 2006.01~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2109000403
박승철	2014.03.03	운용전문인력	189	3,251	2	280	고려대학교/동 대학원 수학과 졸업 2000.03~2007.06 현대증권 파생상품운용팀 2007.06~2007.09 마이어자산운용 실물자산팀 2007.09~2009.09 기은SG자산운용 SI운용팀 2010.02~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2109000679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운용전문인력
2014.01.24 - 2017.01.29	이관홍
2014.03.03 - 2017.01.29	박승철

(주 1) 2017.0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3.73	0.08	2.09	0.08	
	판매회사	스마트헤지 증권1호(채권혼합)C	4.06	0.15	2.36	0.15
		스마트헤지 증권1호(채권혼합)C-f	0.15	0.01	0.08	0.01
		스마트헤지 증권1호(채권혼합)S	0.00	0.06	0.00	0.06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 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24	0.01	0.13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18	0.00	0.10	0.00
	보수 합계		8.35	0.31	4.76	0.31
	기타비용**		0.07	0.00	0.04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1.55	0.03	0.86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16	0.00	0.04	0.00
		합계	1.71	0.04	0.91	0.04
증권거래세		1.32	0.03	0.35	0.01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 수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 수수료비율(B)	합계(A+B)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 신탁1호(채권혼합)	전기	0.01	0.15	0.15	0.01	0.15	0.15
	당기	0.01	0.14	0.14	0.01	0.14	0.14
종류(class)별 현황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 신탁1호(채권혼합) C	전기	0.95	-	0.95	0.96	0.14	1.10
	당기	0.95	-	0.95	0.96	0.14	1.09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 신탁1호(채권혼합) C-f	전기	0.38	-	0.38	0.39	0.15	0.53
	당기	0.38	-	0.38	0.39	0.14	0.53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 신탁1호(채권혼합) S	전기	0.54	-	0.54	0.54	0.15	0.69
	당기	0.54	-	0.54	0.54	0.14	0.67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플러스 스마트헤지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1,338	60	2,397	116	106.17	421.21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16.01.30 ~ 2016.04.29	2016.04.30 ~ 2016.07.29	2016.07.30 ~ 2016.10.29
278.92	174.03	204.13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